

임진전쟁기간 중의 명조내부의 화·전 논쟁

장 지 곤

(요녕사회과학원 연구원)

1580년대, 풍신수길(豊臣秀吉)은 무력으로 일본을 통일한 후 그 야심이 급격히 팽창하여 조선병탄, 중국정복과 아시아패권 장악을 기도하며, 명 만력(明萬曆) 20년(1592) 4월 13일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일본군은 침략 2개월 만에 부산, 한성, 평양 등지를 연이어 점령하였다. 조선의 임금 선조는 중국과 조선의 접경지역인 의주 일대까지 퇴각하며, 의병을 조직하여 저항하면서 명 왕조에 구원요청을 하였다. 명 왕조는 신속히 지원군을 출병시켜, 중국·조선 연합군은 침략해온 적에 대항하며 7년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 이를 역사에서 '임진전쟁'이라 한다. 임진전쟁 기간동안, 명 왕조 내부에는 '화의'와 '전쟁'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전세(戰勢)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 전쟁 초기의 출병 논쟁

명대, 중국 조선간에는 줄곧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일본의 침략으로 조선이 망국의 위협에 직면하여 중국에게 출병지원을 요청했을 때, 명

왕조 내부에는 출병여부를 두고 논쟁이 많았다. 병과급사중(兵科給事中) 허홍강(許弘綱)은 중국은 대국(大國)이고 조선은 속국(屬國)이므로, 속국은 대국을 위한 문을 지킬 책임이 있으나, 대국은 속국의 강토를 보호해 줄 의무가 없다고 했다. 병부좌시랑(兵部左侍郎) 송응창(宋應昌)은 조선과 중국은 국토를 잇고 있는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어 출병하여 조선을 돕는 것은 도의상 거절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명 조정은 논의를 거친 결과, 대다수가 송응창(宋應昌)의 견해에 동의하여 마땅히 신속히 출병하고 조선을 도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 평양대첩 후의 전수(戰守) 논쟁

만력(萬曆) 21년(1593년) 정월, 이여송(李如松)은 명군 4만 3,000명을 이끌고 조선 경내로 들어갔다. 1월 7일 중국조선연합군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포위하고 곧바로 공격을 전개하였다. 중국조선연합군의 강력한 공격에 일본군 만 여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평양대첩은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의 기세가 꺾일 만큼 타격을 주었으며 황해도, 개성 등지의 일본군 역시 한성까지 움츠러들었어, 조선의 산하 절반이 회복되었다. 이 시기 명 조정 내부에는 전수(轉守)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병부상서(兵部尙書) 석성(石星)을 중심으로 하는 주화파(主和派)는 담판을 통해 일본군으로 하여금 전군을 일본 본국으로 철군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주전파(主戰派)는 전수(戰守)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이 화의하자는 것은 연합군의 전진을 늦추려는 계략으로 평화회담을 이용하여 시간을 벌며 권토중래를 위한 준비일 뿐이라 하였다. 따라서 적의 화의 제안은 거짓이므로 쉽게 믿어서도 안되고 적의 화의조건을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3. 화의기간의 봉공(封貢) 논쟁

– 풍신수길을 왕에 책봉하고 조공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봉공안(封貢案)

1593년 가을, 계료(薊遼) 총독(總督) 고양겸(顧養謙)이 대일(對日) 화의를 주장하여, 명 신종(神宗)은 9명의 대신, 과(科), 도관원(道官員)이 이 일에 대해 회의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명 왕조 내부에서는 3년 여에 걸쳐 봉공(封貢)논쟁이 시작되었다. 1593년 10월부터 1594년 8월까지가 봉공논쟁의 1단계였다. 주전파(主戰派)가 봉공을 극력 반대하였기 때문에 신종황제(神宗皇帝)는 봉공을 그만두게 하였다. 1594년 8월, 총독 고양겸이 명 신종(神宗)에게 상소하여 봉공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였으며 이로써 봉공 논쟁은 제2단계에 들어섰다. 쟁론 결과, 주전파(主戰派) 대신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일본의 화의 음모는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1596년 9월에서 1597년 정월까지가 봉공논쟁의 제3단계이다. 주화파(主和派)는 책봉(冊封)이후 일본이 곧 철군하리라 생각했다. 그들의 환상은 오래지 않아 풍신수길이 발동한 제2차 조선침략전쟁으로 인해 깨어졌다. 이 지경에 이르러 명 신종은 비로소 평화협상이 철저하게 실패하였음을 깨닫고, 석성(石星), 심유경(沈惟敬)을 체포하여 그 죄를 물었다.

화의(和議) 실패는 일본의 관백(關白) 풍신수길의 침략야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중국조선의 일본침략에 대한 항전 결심을 공고히 해주었다. 중국·조선 연합군의 공격에 일본의 침략 야욕은 철저히 좌절되었다.

(원고투고일 : 2006. 4. 7, 심사완료일 : 2006. 7. 25)

주제어 : 임진왜란, 평화협상, 원정군, 조명연합, 조공국

壬辰战争期间明朝内部和战之争

张 志 坤

(辽宁社会科学院 研究员)

16世纪80年代,丰臣秀吉以武力统一日本后,野心急剧膨胀,妄图一举吞并朝鲜、征服中国、称霸亚洲,并于明万历20年(1592)4月13日悍然发动侵朝战争。由小西行长、加藤正清等统率15万日军,在2个月内相继占领釜山、汉城、平壤等地。朝鲜国王李昞退至中朝边境义州一带,一面组织义兵抵抗,一面向明王朝请求救援。明王朝迅速出兵支援,中朝联军共同对敌,进行长达7年的反侵略战争,史称“壬辰战争”。壬辰战争期间,明王朝内部对“和”、“战”问题争论十分激烈,严重影响了整个战争的进程。本文试对当时的论争情况进行梳理,以期总结经验教训,起到以古鉴今的作用。

一、战争初期的出兵之争

明代,中朝间一直维持着良好的友邻关系。及至日本大肆入侵,朝鲜面临亡国危险,请求中国出兵救援时,明王朝内部在是否出兵问题上曾有争论。兵科给事中许弘纲认为,中国为大国,朝鲜为属国,属国有为大国守门户的责任,大国没有为属国保疆土的义务。他在奏疏中说:“中国御倭,当于门庭。夫边鄙,中国门庭

也、四夷则篱辅耳。闻守在四夷、不闻为四夷守。朝鲜虽忠顺、然被兵则慰谕、请兵则赴援、献俘则颁赏、尽所以待属国矣。望风逃窜、弃国授人、渠自土崩、我欲一苇障之乎？”¹⁾ 兵部右侍郎宋应昌则认为、朝鲜与中国山水相连、唇齿相依、出兵援朝、义不容辞。他上疏神宗皇帝：“关白(日本宰相丰臣秀吉)之图朝鲜、意实在中国、我救朝鲜、非止为属国也、朝鲜固、则东保蓟、辽、京师巩于泰山矣。”²⁾ 明朝廷经过议论、多数人同意宋应昌的看法、认为、朝鲜虽是属国、但却是中国的屏障、是兵家必争之地、唇亡则齿寒、应尽快派兵援朝。明神宗决定：一边派官员赴朝向朝鲜国王传示诏谕、说中国决心匡扶大义、十万援军、不日克达；一边采取行动、下令“辽东抚镇发精兵二枝、应援朝鲜。仍发银二万两解赴彼国犒军、赐国王大红纁丝二表里慰劳之。”³⁾

万历20年(1592年)7月、明朝派辽东游击史儒、戴朝弁率2000骑兵先期入朝、副总兵祖承训率3000骑兵紧随其后。史儒等开进到平壤附近、因道路不熟、误中埋伏、适逢大雨、火器无法发挥作用、后全军覆没、史儒、戴朝弁力战牺牲。前来营救的祖承训经敌冒进、盲目攻进平壤、中了日军的伏击、结果大多数阵亡、只有祖承训等几个人逃回。初战失利的消息传来、朝野震动。明朝廷内部很快分成主战、主和两派。主战派认为我军最利于速战、应派大军对倭寇进行征剿。主和派畏敌如虎、主张放弃朝鲜、退守鸭绿江边。特别是原先积极主张出兵朝鲜的兵部尚书石星、这时却转变为主和派、提出派遣通晓日语之人、前往倭营打探日军动静、准备与日军进行和谈。最后明神宗在两派之间折衷：一方面按主战派建议、命宋应昌经略防倭军务、命大将李如松提督蓟、辽、保定、山东军务、任防海御倭总兵官、率大军驰援朝鲜；另一方面又按主和派石星的建议、招募沈惟敬去日军营中联系和议之事。

沈惟敬、浙江嘉兴人、系市井无赖之徒。其父、祖均为海商、与倭寇有许多瓜葛、他本人就出生在日本的堺港。沈惟敬被招募后、石星立即派他去平壤、与侵占

1) 『明神宗实录』卷250、第4648-4649页。

2) 『明史纪事本末』卷62、第968页、中华书局、1997年版。

3) 『明神宗实录』卷249、第4630-4631页。

平壤的日军第一军长小西行长进行会谈。小西行长表面谦恭、但内心却诡谲奸猾。他向沈惟敬表示：明军按兵不动、日军不久也将撤退。同时提出“以大同江为界、平壤以西划归朝鲜”的无理要求。沈惟敬将小西行长的和谈条件上奏明朝廷、引起朝中大臣的极大愤慨、神宗皇帝也非常生气、遂决定调集重兵、赴朝救援、与日军展开决战。直到这时、主和派石星仍对和谈抱有幻想、任命沈惟敬为游击、允其在日军营中频繁进出。

二、平壤大捷后的战守之争

万历21年(1593年)正月、李如松率明军43000人进入朝鲜境内。沈惟敬从倭营返回、再次陈述小西行长的和谈条件。李如松斥责沈惟敬为险邪之人、欲将其斩首。参谋李应试说不杀沈惟敬可以起到麻痹敌人的作用、这是一个好的计策。于是李如松将沈留在营中、命令军队向平壤开进。1月7日、中朝联军对盘踞于平壤的日军进行包围、旋即展开攻击。明军炮火猛烈、作战英勇、李如松身先士卒、阵前督战、战马倒毙、换骑再战。在中朝联军的强攻下、日军死伤万余人、小西行长率残部逃奔汉城。平壤大捷、沉重打击了侵朝日军的嚣张气焰、黄海道、开城等地的日军也向汉城龟缩、朝鲜的半壁河山得以恢复。其后、李如松率军南下、于1月23日到达开城、准备一举攻下朝鲜王京汉城。这时经略宋应昌写信给李如松说：“前者、平壤倭奴虽众、犹属一支、攻之宜急。今者、各路总归王京、其势大合、且去爱州道途千里、其为当慎视前尤甚。必须俟我刍粮军火器械并集充裕、然后进剿、方为万全。”⁴⁾李如松不听宋应昌的忠告、轻信日军已从汉城撤退的传言、率轻骑千余人向汉城进发。当行至距汉城30里的碧蹄馆一带与日军大部队遭遇、李如松虽力战得免、但部队却损失惨重、遂返回开城布防、结束了第一阶段的攻势作战。

碧蹄之战后、由于李如松轻敌失利、士气受挫、加上粮饷筹措困难、又传闻日

4) 宋应昌：『经略复国要编』卷五、“与平倭李提督书”。

军在汉城增兵20万、明军遂在战略上采取了防守态势。而日军因在平壤之战中受到沉重打击、碧蹄作战虽阻止了明军的进攻、自己损失相当惨重；又因其在龙山的粮仓被明军焚毁、日本海军遭朝鲜海军重创后、制海权丧失、后勤补给困难。所以也无力对明朝联军展开反击、双方处于僵持状态。3月、小西行长致信沈惟敬、“恳求封贡东归”。对此、宋应昌采取两项措施：一是决定同日军议和、并派沈惟敬立即去汉城、认为“倭如听从、亦不战而屈人兵矣、功亦非细”；⁵⁾ 二是仍准备进剿日军、继续调兵到朝鲜、戒令援朝之军不得生退心。他致信小西行长、提出议和条件：日军全部撤出朝鲜、送还被掳的朝鲜二王子和大臣、日后可封丰臣秀吉为日本国王。经过谈判、日军答应于4月8日从朝鲜撤退并送回朝鲜二王子和大臣。但一直到4月18日、日军才从汉城缓慢撤退、且不归还二王子。6月、沈惟敬同倭使小西飞来王京请求和议。随后、日军进犯咸安、同时劫掠晋州、屠杀全城6万余人、并声言“以王京、汉江为界。”兵科给事中张辅之说：“倭聚釜山、原佯退、诱我撤兵、图渐呈。无故请贡、非人情。今猝犯晋州、情形已露、宜节制征剿。”⁶⁾ 宋应昌鉴于日军无信、下令明军进击。7月20日、日军送回二王子、部分撤出朝鲜、但仍留5万余人盘踞于釜山等地。

战场形势的变化、使明朝内部再次展开激烈争论。争论的焦点是战守问题。以兵部尚书石星为首的主和派认为、日军已从汉城撤退、朝鲜三都八道大部恢复、残余日军虽盘踞沿海一带、但也不可能有很大的作为、可以通过谈判、促其全部撤回日本国内。明军兵疲师老、给养困难、无法进行攻势作战、和谈在即、应全师而退、留下少数人虚张声势即可。廷议中、兵科给事中侯庆远提出：“倭奴中途筑垒固险为久驻计。我师追蹙已度王京三百里、独苦无糗糒。臣窃谓：初我师出境无敢谓百全必克者、暨平壤一捷、开城再捷、颇以倭为易与、于是有碧蹄之败。因败而惩、持重自保、于是乎有许和之议。倭奉约而南、又见谓师老气竭、情归可乘、于是乎有尾击之说。窃怪我与倭何仇也？诚不忍属国之剪覆、特为勤数道之师、掣两都而手授之、朝鲜存亡兴灭、义声赫于海表。我之为朝鲜者、亦足矣。而复为之苦

5) 宋应昌：『经略复国要编』卷七、“与李提督并二赞画书”。

6) 『明史纪事本末』卷62、第968页、中华书局、1997年版。

战、以横挑已讲之倭、恐非完策也。朝鲜谊不与倭戴天、则五合六聚而撓之、以贸首为快、不惜其他、势也；倭欲归弗得计、大创追兵、未可平行无虞、则蒙死不返顾、亦势也。今我助朝鲜以斗、假朝鲜推大国以为锋、而我又欲先用朝鲜之众以为尝、两军争便、倭得张疑以持我、而并锐以走朝鲜、朝鲜不支、我师亦难独立矣。凭怒求战、致毒必深、何可不虑害也。王者之师、不趋小利、不徼小胜。我以德植朝鲜、以信屈倭奴、全归而归、所获实多。若旋结言而旋倍之、是谓不祥、即 馘首数万级、不足以称武。而厮与有一不备、适足以损重而貽羞、乌容不审权也。伏念倭既不能殄之而除本、则莫若纵之以成信；朝鲜不可轻动、亦不可中弃、则莫若少留锐师、以为之声援。宜亟敕兵部、谕东征文武诸臣、毋徇敌、毋信降、毋妄希奇捷、毋不虑隐患。朝廷以完师为功、不以深入多杀为右。要以早休士马、速纾东顾而已。”⁷⁾ 明神宗认为侯夫远说的对、谕“兵部不必议覆、驰示东征官、令其从长酌处。但以旋师退贼为功、毋得惶惑自扰、以误大计。”

主战派提出加强战守的主张。认为侵朝日军提出和谈是一种缓兵之计、企图利用和谈拖延时间、为以后卷土重来作准备。故不能轻信敌人的和谈谎言、轻许敌人的和谈条件。在战事上、中朝联军要“追穷寇”、造成对日军的强大军事压力、迫使其从朝鲜国土上撤走。在防守上、要保持足够的防守兵力、据守关隘要地、防止敌人反扑、避免前功尽弃。户科给事中吴应明说：“倭奴攻陷朝鲜、易于破竹。乘胜之师、何所不逞。乃我师一集、辄弃开平而不顾、守王京而不坚。岂诚畏威远遁哉？自古行师、不战而退者、非军中有疫、则国中有变、未可知也。夫倭奴情形、未有真见。我师进止、当有定画。粮少当请增饷、不当请还兵。若惮远追、当议聚屯、不当议撤放。朝鲜之地、岂无平行可黍可稻者？相其地利、务为耕种、略如充国之屯金城、孔明远田涪滨。而时以馈运相济、兵虽留、不忧食也。至于所谓留兵、唯阳示之战、以张其形、不当急追之战、以疲其力；唯协守开平、王京以固其防、不当散守各路诸岭以分其势。则清野坚壁、亦可长不困也、而胡为遽议撤乎？”⁸⁾ 兵部职方司主事曾伟芳认为、日本议和也得撤军、不议和也得撤军；议和

7) 『明神宗实录』卷261、第4835-4836页。

8) 『明神宗实录』卷262、第4858-4859页。

也要来侵犯、不议和也要来侵犯。这就是关白大军已撤回、行长留在朝鲜待命的原因。他在奏疏中说：“臣窃睹倭奴款贡之害、三尺竖子类能言之、乃当事诸臣犹踌躇而不能决。非谓不款则倭不去乎？臣则曰：款亦去、不款亦去。又非谓倭不款而去、将必复来乎？臣则曰：款亦来、不款亦来。臣请借箸为画：当平壤一创、倭已知奄据朝鲜不成其志、固惟擄掠不归、将金帛子女安所置之。迁延釜山数月、非不去也、前者陆续驱重资浮海而东、其后者徐为殿也。况今天大众已还、仅遭小西飞三十余人至王京乞贡、行长留一枝以待。知吾大兵未撤、其不能以此日一矢相加遗也、明甚。欲归报关白卷土重来、则风汛不利；正冬苦寒、势又不能。故曰不款亦去。本谓我战平壤斩馘数万、浮尸蔽江、燹臭十里、可明汉兵若风雷意、倭奴大创而去、当不复来。今称克开城、夏王京、还王子陪臣以议款、故则彼又何威我偃我、而能就我束缚、守我盟誓哉？且以沈惟敬前在倭营见与为媾、咸安随陷、晋州垂技、而欲恃此许款、冀来年之不复攻、则速之款者、速之来耳、故曰：款亦来。夫不款无忧其不去、则何必借款以市其去。款之难保其不来、则何必重款以饵其来。今日之计、则惟却其贡而严其守。”⁹⁾ 战守之争的结果：朝廷的主和派强行下令援朝大军大部撤回国内。经略宋应昌上疏朝廷、提出不同意见、建议：“留兵一万六千防守朝鲜、月该饷五万余两、皆户兵二部出给、而朝鲜量助衣鞋食米等费。”¹⁰⁾ 宋应昌的意见遭兵部尚书石星和神宗皇帝否决。历史上宋应昌曾与石星一样被评价为主和派。但宋的和议活动、是在平壤大捷后军事进剿不利的情况下采取的一种谋略、今天看来仍不失为一种正确的方策。如宋应昌在与日军和谈期间、始终未忘记战争准备；当日军在晋州屠城、不送回朝鲜王子、破坏和谈协议时、宋应昌下令进行征剿；明朝降旨撤军时、敢于提出增加留守兵力的建议等。主和派石星则一厢情愿地把日本撤军完全寄托在和谈上、在日军并未履行协议的情况下匆匆撤退中国援朝军队、原计划留16,000人、最后只留5,000人；原议日军全部撤回日本国内再行和谈、但未等日军撤完就进行、后又进一步裁撤中国驻朝军队、在战略上犯了严重错误。显而易见、平壤大捷后、日军提出和谈、是想用暂时休战的缓

9) 『明神宗实录』卷264、第4920-4921页。

10) 『明神宗实录』卷264、第4916-4917页。

兵之策、获得喘息之机。但明朝内部的主和派却没有看清这一点、反对战守、崇尚和谈、从而使中朝联军丧失了战场上歼敌的有利时机、为日军再次入侵创造了条件。

三、议和期间的封贡之争

1593年秋、薊辽总督顾养谦主张对日和谈、并代替宋应昌主持撤军事宜。明军既撤、和议自然被提到议事日程上来。但这时明神宗对是否同意日本的封贡请求尚犹豫不决、命令九卿、科、道官员会议此事。于是明王朝内部展开了长达3年多的封贡之争。

1593年10月至1594年8月、为封贡之争的第一阶段。期间、主战派极力反对封贡。御史杨绍程上疏说：“臣考之太祖时、屡却倭贡、虑至深远。永乐间、或一朝贡、渐不如约。自是稔窥内地、频入寇掠。至嘉靖晚年、而东土常驻祸更烈、岂非封贡为厉阶耶？今关白谬为恭谨、奉表请封之后、我能闭关拒绝乎？中国之衅、必自此始矣。且关白弑主篡国、正天讨之所必加。彼国之人、方欲食其肉而寝处其皮、特劫于威、而未敢动耳。我中国以礼义统驭百蛮、而顾令此篡逆之辈叨天朝之名号耶！宜急止封议、敕朝鲜练兵以守之、我兵撤还境上以待之、关白可计日而败也。”¹¹⁾ 礼部郎中何乔远、科道赵完璧、王德完、遂中立、徐观澜、顾龙、陈维芝、唐一鹏等人、连续上奏章请求停止封贡。尚宝司卿赵崇善上疏说：“不主封贡、当议战守。朝鲜北面与辽接壤而三面距海、东西皆崇山绝岛、连亘阻塞。惟南面釜山、乃倭夷入路。倭欲由釜山入王京、必经全罗、庆尚二道。而全庆之间、如云峰、大丘、皆有险可据。此地设防、一诚当百。今刘綎五千川兵尚在、再加南兵三千、令之训练朝鲜士卒。彼国田最膏腴、因粮以练兵、无征输之烦、而有安攘之利。盖倭酋不得朝鲜、则朝鲜西南有莲花、飞盖诸岛限隔、非但不能陆窥辽左、亦

11) 『明史纪事本末』卷62、第969页、中华书局、1997年版。

不能水犯天津。若倭酋据有朝鲜、则王京之汉阳江、开城之临津江、平壤之大同江、处处可以通海、直达畿辅、不必渡鸭绿走辽阳也。是故欲安中国、必守朝鲜；欲安朝鲜、必守全庆。”兵科都给事中张辅之说：“倭之乞贡、志在内窥、果徒抱尺一之纸、处穷海之外耶？倭之屯聚、志在劫盟、能使小西飞出王京乎？行长之离西浦耶？拥众而挟、则我弗可许也。浮海而去、则我弗能驱也。不封不贡、则倭必螫毒于朝鲜、而祸在今日；许封许贡、则倭且垂涎于中国、而祸胎将来。”¹²⁾ 1594年5月、九卿科道奉旨第二次会议倭事。尚书陈有年、侍郎赵参鲁、科道林材、甘士价等、则各具疏揭、提出以罢款议守为主、不得已而与款、犹当遵明旨、守部议。薊辽都御史韩取善上疏说：“日本情况还未确定、请皇上罢止封贡。”兵科都给事中张辅之再次上奏：“盖天下事无全利亦无全害、惟择其利多害少者为之。臣等窃谓、许贡则中外解严、而他日有变、大众不可复收、其祸迟而大；绝贡则战守预备、而一旦有变、大众迄今未散、其祸速而小。况日本在南、朝鲜在北、今之寒暖不敌也；我处其内、倭处其外、今之主客不敌也；我可因粮于朝鲜、倭难筹饷于海外、今之饥饱不敌也。奈何以盛朝之义举、甘蹈弱宋之覆辙哉？”¹³⁾ 在一片反对声中、主和派石星惊慌失措、急忙上疏神宗皇帝、辩和议之始终：“以平壤缓兵而约、以王京愿退而许、以晋州之破而再拒、以王子陪臣之还而再订。然后有封而不贡之说、有退而后封之说。其成与否、臣又何心。今降敕一道、付小西飞归谕关白、尽撤釜山兵以观诚伪、则请如罗万化议；或遣使往谕、必如中国约、乃许倭使具表偕来请封及守鸭绿以西、宜尽责督臣、则请如孙矿议；或封贡并绝、自修内备、令朝鲜淬砺图存、而我遥为声援、兵饷俱难再助、则请如陈有年、赵参鲁议。而众论之所僉同者、莫不汲汲于选将、练兵、储器、借饷、屯田、扼险、皆本计也。”石星在这里把各种反对意见罗列起来、实际上是要滑头、想用皇帝裁决的办法来打压反对和议的大臣。神宗皇帝以“降敕事大、未可轻以。还令顾养谦谕众悉归、查验表文、如果皆实、即奏请处分。其一应防御、督抚官加慎整理。若将吏有款后弛边备者、重处。”后来因朝议难决、神宗皇帝下旨停止封贡。这次争论以

12) 『明神宗实录』卷264、第4925页。

13) 『明神宗实录』卷264、第4908页。

主战派胜利而告终。

万历22年(1594)8月、总督顾养谦上疏明神宗、提出封贡的具体方案：即贡道宜定在宁波、关白宜封为日本国王、请皇上选派才力武臣为使节、宣谕小西行长率军归国、便于封贡如约。以此为开端、至1596年8月、是为封贡之争的第二阶段。

万历22年9月、神宗在嘉奖东征有功官员时、责问兵部尚书石星：“朕前见廷臣争讲东倭封贡事宜、自奉旨停罢后、如何再无人言及倭事？你部里亦未见有奇谋长策来奏、不知善后之计安在？今宣捷告庙、此事尚未完结。朕宫中将此倭情细思之、或遣兵驱去、或待再来出兵征之、或不许贡但许市。这三策、你部里可斟酌复奏。”¹⁴⁾ 在这道谕旨中、明神宗提出三个可供选择的方案、要兵部权衡利弊得失、拿出可行意见、表明其对封贡问题尚举棋不定、处在可与不可之间。主和派石星内心是极力主张封贡的、但表面上对皇帝的“三策”只是含糊其词地答道：“罢封贡虽许开市、未知东南省直利害如何？若待再至出兵征之、今设宽奠副总兵、增兵万人、仍行山东、浙、直、福、广沿海将士、严兵训练。”¹⁵⁾ 对石星的答复、神宗皇帝只好不了了之。恰在这时、朝鲜国王李昞上书神宗、请求答应日本封贡、以保全自己国家。于是明神宗下决心实行封贡、指示兵部：“倭使求款、国体自尊、宜暂磨之。”当刑部主事郭实上疏反对封贡时、神宗立即降旨、将郭实革职为民、并要兵部通查、凡有阻挠封贡、造言惑众的、一一上报。封贡的事就这样定下来了。此时、主和派石星重新活跃起来。他一面疏大谈封贡之可取、说：“皇上慨然许封、敷布诏旨、今倭久住釜山、我之不封、既已失信、彼之请封、又复骤疑。故封而后敕令尽归、宜无不得。”¹⁶⁾ 一面提出具体方案：派官员赴辽阳、迎接日方使者小西飞前来京师；派官员赴朝鲜釜山、要小西行长做好准备、一俟封事既定、立即从釜山撤退。神宗批准了石星的方案、并且重申：“有不奉旨阻挠的、奏来拿问。但有腾架浮言、败坏封事、著厂卫衙门多差兵校严行缉拿重治。”¹⁷⁾ 12月、

14) 『万历邸钞』、万历二十二年甲午卷。

15) 『万历邸钞』、万历二十二年九月丁亥。

16) 『国榷』卷七六、万历二十二年十月丁卯。

17) 『万历邸钞』、万历二十二年甲午卷。

日方使节小西飞抵达京师。石星用优厚礼遇接待日本使臣。小西飞等人神气十足、路过宫殿不下马。明朝廷聚集很多官员与日本使节小西飞会谈、并提出封贡的三个条件：一是日本军队全部回国；二是给日本封号、不许日本入贡；三是日本发誓不侵犯朝鲜。对此小西飞表示完全接受。随后、明神宗下旨、派临淮侯李宗城为正使、都指挥僉事杨方亨为副使、在沈惟敬的陪同下、前往日本、册封丰臣秀吉为日本王。册封诏书写道：“朕受天明命……惟尔日本、远隔鲸涛、昔尝受爵于先朝、中乃自携于声教。尔平秀吉能统其众、慕义承风、始假道于朝鲜、未能具达、继归命于阙下、备见真诚。驰信使以上表章、干属藩为之代请、恭顺如此、朕心嘉之。兹特遣后军都督僉事李宗城、五军营右副将都督僉事杨方亨、封以日本国王、锡以冠服金印诰命。凡尔国大小臣民、悉听教令、共图绥宁、长为中国之藩篱、永奠海邦之黎庶、恪遵朕命、克祚天庥。”¹⁸⁾云云。

然而、事情发展并不像明朝廷主和派想象的那样。自万历23年春正月正副使臣派出后、日本不仅未撤一兵一卒、相反加紧构筑工事、储备物资；不仅未尽快安排使团过海策封、相反以修筑馆舍、学习礼义为名、将明使臣羁留于釜山达一年之久。各种迹象表明、日本根本就没有和议的诚意、只不过是企图以和谈为手段、达到其侵略目的。这一点、明朝廷一些有识之士看得非常清楚、并不断上疏皇帝、揭露日本的阴谋。1595年正月、辽东御史李化龙上书说、日本有六处可疑、五处可虑、指出：“日本不识汉字、恐怕中间两相欺骗、请皇上听从礼部建议、封平秀吉为顺化王。停止派遣沈惟敬、增募水军。而清正素不服关白、与行长不能相容、可以用鲁连谕燕将计离间他们。”疏上、册封的使臣已经出发、神宗竟不听从。

万历24年(1596)正月、沈惟敬诡称日本方面要预先演示接待明朝使臣的礼节、同行长先渡海到日本、私下送给丰臣秀吉蟒玉、翼兽冠及地图、《武经》。又驱赶骏马三百匹到南戈壁、派人暗中送给丰臣秀吉。春四月、呆在釜山的正使李宗城、终日无所事事、耽于声色犬马。日将宗仪智派三名美女、夜夜侍寝。但他并不满足、听说宗仪智的妻子貌美、也想奸淫。宗仪智大怒、扬言要杀他。李宗城吓得连夜逃跑、将玺书、关印丢在日营。副使杨方亨将此事报告朝廷、神宗下令逮捕李宗城问

18) 『国榷』卷七七、万历二十三年二月辛亥。

罪。同时，以杨方亨为正使、沈惟敬充副使，赴日本册封。御史曹学程上疏说：“迩者，封事大坏，而杨方亨之揭谓封事有绪，星与方亨表里应和，不足倚信。为今日计，遣科臣往勘则可，往封则不可。星很很自用，赵志皋碌碌依违。东事之溃，元辅、枢臣俱不得辞其责。”疏入，神宗皇帝大怒，诏逮学程下锦衣卫严讯，后移刑部定罪。御史中丞周礼教上疏说：“今正使已窃逃矣，随行已被杀矣，沈惟敬已被缚矣。倭变情形，明如指掌。此固不待借箸为筹，便当屈指能算。乃石星执迷不悟，奉杨方亨片纸为蓍龟，蚩望倭奴之不变，侥幸封事之万一。噫！愚亦甚矣。况臣细玩杨方亨之揭词，犹然骑墙，亦无一定之论，是岂抚按之章奏，全不足凭。必待倭寇临城而后为之变哉？试观今日事势，倭变乎？倭不变乎？封可言乎？封不可言乎？计不旋踵，义难再辱。况倭奴千变万态，日引月延，宫室久已落成，礼仪岂难习熟。煌煌金印，费用不售，孑孑千旌，节敝旄落，关白之机关尽露，沈惟敬欲弥缝不能，奈何尚梦想封事，苟且目前乎？噫，愚亦甚矣！……李宗城宵遁辱命，为外国姗笑。昨陛下赫然震怒，扭解究问，天威一震，中外增气。第出使重任也，昔班超西指，汉以重轻，奈何当时儿戏视之，而以一竖子辱命，取轻外国，如是尚为中国有人乎？方小西飞之来也，俨然上宾，一国郑重，公则宴赏，私则赠遗，使狼子野心，睥睨窥伺，高步阔视，旁若无人，竟不陛谢，又为陈三日之市，饱其欲而去。乃我堂堂天使，衔命而往，屈辱縲击，淹历岁月，楚囚南冠，萧然无聊，生者鼠窜狼奔，死者膏饬横草，么麽小丑，敢于无状如此，臣每念及，不觉怒发上指冠，恨不灭此丑而朝食。”¹⁹⁾ 御史中丞李光禄上疏说：“自册使东行，已经年余，但闻其要挟之语，未见迎受之状。弁髦朝命，羈囚使臣，侮慢不恭，轻藐天朝已甚，此往封又误矣。今正使已逃，情形已露，倭日聚兵釜山，建舍，积饷，造船，大修战具，此其恬然受封，委命称外藩者乎？奈何堂堂天朝，必欲强之受封，终欲以封自愚哉。夫倭而无志于中原，则我不必议封。设使果有侵犯之意，志不在小，岂一封所能御。臣尝按迹推之，关白一亡命徒耳，窃据一国，已足自快，乃一举而收六十六岛。既收诸岛，志意已满，乃又一举而直破朝鲜。朝鲜破矣，乃又不爱金帛子女，惟舆图是索，割地是讲。由此以观，盖隐然有横行之谋。以封就封、

19) 『明经世文编』卷四五一、第4995页。

实缓我备、非真以中国之封为荣重者也。赖天之灵、封事旋败、我得识其谋而早为之防、其失固大、其祸尤浅。万一阳受而幸成之、则彼谋愈深、而我防愈疏、其失更大、其祸更烈。故臣为今日计、不必问倭情顺与不顺、封事成与不成、惟当一意防守、乃为万全长策。独辅臣赵志皋、枢臣石星、不咎始谋不臧、百计阻言战守。始焉既误、岂容再误。终听二臣谋、恐非社稷福也。”²⁰⁾ 工部郎中岳元声上疏弹劾石星、说封日本国王、有三辱、四耻、五恨、五难。明神宗对上述奏疏、不是置之不理、就是将上疏者罢官为民。第二阶段的封贡之争的结果、主战派大臣遭到严重打压、主和派受到明神宗的青睐、日本的和谈阴谋得逞。

从1596年9月杨方亨、沈惟敬携册封诏书到达日本始、到1597年正月日军第二次侵朝止、为封贡之争的第三阶段。中国册策使臣抵日后、丰臣秀吉假惺惺地斋戒沐浴3日、在郊外迎接明朝使臣、然后举行受封大礼。当朝鲜州判献上白紬表示祝贺时、丰臣秀吉勃然大怒、对沈惟敬说：“如果不是遵守天朝命令、不会将二王子、三大臣、三都、八道付还朝鲜。今天朝鲜派卑下小官、带微薄礼物来贺、是侮辱我小国呢？还是侮辱天朝呢？”沈惟敬稍加劝慰、丰臣秀吉余怒未消、说：“现在留石曼子军队在那里、听候天子处理、然后撤还。” 丰臣秀吉如此横生枝节地指责朝鲜、实际上是为再次出兵寻找借口。

万历25年(1597)正月、册封日本使臣杨方亨一行回到釜山。神宗接到兵部奏疏后、降旨说：“览奏、日本受封、册使回至釜山、恭顺之诚、殊可嘉尚。但釜山余兵尚未尽撤、既非原议、而两国之疑终未尽释。你部便行文与日本国王、著他撤还釜兵、以全大信。又行文与朝鲜国王、著他即差陪臣、以修交好、毋彼此再生嫌隙。”²¹⁾ 石星接旨后、请求亲自赴朝鲜向两国下诏谕、请朝鲜与日本结盟罢兵。神宗没有同意。直到这时明朝廷中的主和派还未识破日本的和议阴谋、仍认为册封之后日本便会撤兵、朝鲜做些让步、两国就能修好、这未免想得太简单了。他们的幻想不久就被丰臣秀吉发动的第二次侵朝战争所打破。正月十五日、辽东副总兵马栋报告、有倭将清正带领倭兵船二百余艘、已到朝鲜海岸、至原住之机张营驻扎、

20) 『明经世文编』卷四二五、第4638页。

21) 『万历邸抄』、万历二十五年丁酉卷。

其兵力不下两万。随后，朝鲜陪臣刑曹郑其远也来京师向明朝痛哭求援。神宗下令廷臣紧急会议倭情、商讨对策。兵科给事中徐成楚指出：倭情紧急、清正率兵船二百余只、丰茂守等率兵船六十余只、至朝鲜西生浦等处、别起倭船络绎过海不绝。他抨击石星等人“只为礼文缺典”引起兵端的说法，是胡言乱语、是蒙蔽天听、驳斥道：“世岂有兴师十数万、浮海数千里、争一繁文缛节”之事。至此，明神宗才明白封事彻底失败。他对使臣与兵部掩盖事实真相的做法十分愤慨，下令逮捕石星、沈惟敬、交法司议罪。他在给刑部的谕旨中说：“倭奴狂逞、掠占属国、窥犯内地、皆前兵部尚书石星谄贼酿患、欺君误国、以致今日、戕我将士、扰我武臣、好生可恶不忠！著锦衣卫拿去法司、从重拟罪来说。”²²⁾

封事失败，完全暴露了日本关白丰臣秀吉的侵略嘴脸，同时也更加坚定了中朝抗击日本侵略的决心。在中朝联军的打击下，日本侵略者遭到彻底失败，中朝赢得了壬辰战争的最后胜利。

K C I

22) 『万历邸抄』、万历二十五年丁酉卷。

<ABSTRACT>

Debates over Peace and War in the
Imperial Government of Ming during the *Imjin* War

Chang, Ji-gon

In the 1580s *Toyotomi Hideyoshi*, having unified Japan by the strength of arms, grew even more ambitious and began to dream of conquering *Joseon*, China, and indeed the whole of Asia. On April 13, 1592 (Year 20 of the Ming Calendar) he began the war of invasion against *Joseon*. In just two months the Japanese force conquered *Busan*, *Hanseong(Seoul)*, and *Pyeongyang* in succession. *Seonjo*, the king of *Joseon*, retreated to *Uiju* region near the border of *Joseon* and China, there to organize militia and resist while requesting Ming for military aid. Ming swiftly dispatched forces, and for the next seven years Ming-*Joseon* combined forces fought the invaders. This is known as the *Imjinwaeran*. In the course of *theImjinwaeran*, heated debates continued in the Ming imperial government over the choices of peace and war, which had critical influences on the overall war effort.

Ming and *Joseon* had long maintained an amicable relation. When *Joseon* faced the threat of national ruin and sought Chinese assistance, there was much debate in the Ming Imperial Court over whether to answer its call. *Huh Hongkang* said that China is an empire and *Joseon* its vassal, and while a vassal was responsible for guarding the empire, the empire was not obliged to protect a vassal territory. *Song Eungchang*, however, opined that *Joseon's* territory was connected with China's and serving as the outer

barrier of the empire, and in consideration of propriety also *Joseon's* request could not be denied. After discussions the majority of the court agreed with *Song's* views that an expeditionary force be sent speedily to aid *Joseon*.

In January 1593 *Lee Yeosong* led 43,000 Ming soldiers into *Joseon*. On January 7 the Ming-*Joseon* Allied Forces surrounded and attacked the Japanese force in *Pyeongyang*. The fierce attack resulted in 10,000 Japanese casualties. The victory in *Pyeongyang* dealt the invaders sufficient damage to halt their march, and the Japanese Forces in *Hwanghae* Province and *Gaeseong* too retreated to *Hanseong(Seoul)*, allowing the recovery of half of *Joseon's* soil. At this time intense debates arose once again in the Ming court concerning future strategies. The peace-favoring faction led by *Suk Sung* claimed that by negotiation Japan could be brought to withdraw all its forces from *Joseon*. The hard line faction, however, wished to strengthen the war effort, believing that the Japanese request for negotiation was calculated to slow the allied advance and buy time to regroup. Therefore they argued that the enemy's talks of peace were false and should not be trusted, nor should their conditions for peace be accepted easily.

In the fall of 1593 *Shinjong*, the Ming emperor, accepted *Ko Yangkyum's* call for peace with Japan, and appointed nine ministers to discuss the particulars of the matter. This began the three-year-long debate in the Ming imperial government over appointing Japan as a vassal state. The first phase of the debate was from October 1593 to August 1594, during which *Shinjong*, facing great objections from the pro-war faction, abandoned the policy. But in August 1594 *Koh Yangkyum* appealed to the emperor with the specifics of the appointment, and the debate entered its second phase. This phase saw the defeat of the pro-war faction, and Japan's plot for the peace talk achieved its aims. The third phase was from September 1596 to January 1597. The pro-peace group believed that once

Japan was formally made a tributary state of Ming it would withdraw its invading forces. Their dream was soon shattered when *Toyotomi* launched his second invasion against *Joseon*. Only then did the emperor realize that peace negotiation was an utter failure, and he had *Suk Sung* and *Shim Yukyung* arrested and held accountable.

The failure of negotiations demonstrated the invader *Toyotomi Hideyoshi's* ambitions, and at the same time reaffirmed the united resolve of Ming and *Joseon* to repel the invasion.

Key Words : *Imjin War*, Peace Negotiation, Expeditionary Forces, Ming-*Joseon* Alliance, Tributary State

K C I